



한은, 금융안정보고서 발표

이혜은 연구원

- 10월 30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「금융안정보고서」에 따르면,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금융·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안정성 수준은 다소 낮아졌으나 은행부문의 양호한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.
 -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가채무문제로 금리, 주가,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참가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.
 -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부문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호조를 지속하고 자본적정성도 양호하여 충격흡수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됨.
 -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확대,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 실적이 부진한 모습인 반면, 신용카드회사는 카드이용 실적의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.
 - 국내금융시장은 주요 선진국 경기둔화 및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확산 우려 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냄.
 - 외환건전성은 외환보유액이 최근 다소 감소했으나, 외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(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및 총외채/GDP 비율 등)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임.
- 하지만 해외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취약부문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잠재적인 리스크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 - 유럽 국가채무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.

-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은행권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, 다중 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권역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.
 - 주택시장은 지방 주택가격이 현재와 같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,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.
- **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환건전성 측면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외채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.**
-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자본유출입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.
 -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경기 상황, 가계의 차입자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을 신중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.
 - 은행들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시기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충격흡수능력을 보다 제고하여야 할 것임.

(금융안정보고서 제18호, 한은, 10/30)